낭만과 힐링 선물하는 수만리 생태숲

단풍·달빛 어우러진 동구리 호수공원

주민 품으로 돌아온 남산공원

화순군이 무등산, 생태숲, 호수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도심 속 근린공원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최고의 힐링·명품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왼쪽부터 수만리 생태공원, 동구리 호수공원, 남산 국화향연.
〈화순군 제공〉

화순군 도심 속 근린공원, '명품 힐링공원'으로

숲속 놀이터·의료연계형 산림치유시설 등 다양한 시설 확충 나서

전남대와 협약 맺고 무등산권 지질관광 사업단 결성…내년 출범

사시사철 낭만과 힐링을 선물하는 '수만리 생태숲', 형형색색 물들이는 단풍과 달빛이 어우러진 '동구리 호수공원', 세계지질공원을 품은 '무등산 주상절리대', 주민품으로 돌아온 '남산공원'….

낭만과 힐링,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화순의 도심 속 명품 공원이 각광을 받고 있다.

6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4억5000만원을 들여 도심 속 공원에 광장, 전망대, 포토존, 앉음 벽, 볼라드, 수목식재, LED바 등 설치해 녹색 힐링공간을 구축하고 있다.

화순 수만리 생태숲 공원은 끝없이 조성된 철쭉군락, 만연산 자락에 자생하는 아름드리 소나무와 편백이 생육하는 그야말로 '화순의 알프스'라 일컬어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수만리 생태공원과 호수공원까지 이어지는 오감연결길은 화순 최고의 트래킹 장소이고 생태숲 공원에 조성된 습지정원과 팔각정 등 편의시설은 탐방객들에게 편안한 힐링 공간을 제공한다.

편백숲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숲속 놀이터 2곳을 조성하고, 진입로 확포장 공사도 진행 중이다.

화순군은 또 내년까지 국비 50억원을 투입해 풍부한 산림자원, 산림치유, 휴양 인프라를 활용한 전국 최초 의료연계형 산림치유시설도 이곳에 조성할 예정이다.

화순군의 또 다른 자랑은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다.

화순의 지질명소로는 무등산 정상3봉(천왕·지왕·인왕봉), 광석대 주상절리대, 신선대 주상절리대, 지공너덜, 무등산 풍혈, 서유리 공룡화석지, 적벽, 고인돌 용결응회암, 운주사층상응회암 등이 있다. 특히 광석대 주상절리대는 하나의 기둥이 7m로 세계 최대 단일기둥을 가진 절리대다.

화순군은 담양군·광주시와 무등산권 지질공원 통합 지질관광 및 세계화 사업을 위해 전남대학교와 협약을 맺어 무등산권 지질관광 사업단을 결성,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다. 법인은 2021년 출범할 예정이다.

화순의 중심가에 자리한 남산공원은 주민 품으로 돌아왔다.

화순군은 남산공원에 6억7000만원을 투자해 '산책로 정비', '조경수 식재' 등 편의시설을 늘렸다.

지난 2013년 처음 개최한 국화향연(국화축제)은 이후 매년 10여만명 안팎의 방문객수를 보이다가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한 후인 2017년부터는 31만명, 2018년 51만명, 지난해 61만명으로 급증, 화순의 명소로 발돋움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공원을 찾는 많은 군민과 방문객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녹색쉼터 제공과 인위적 조성이 아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녹지지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문턱 낮춘 장성군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호응'

기준 완화에 농업인 신청 늘어

올해 44개 농가 최종 선정키로

장성군이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의 필수 시설인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춘 결과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6일 장성군에 따르면 올해 지원 신청 결과 총 88건이 접수돼 이 중 심의회 회의를 거쳐 44개 농가를 최종 선정, 지원한다.

저온저장고는 농산물의 가격을 결정짓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 시설이다. 또 수확기 농작물을 시장 수요에 맞춰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 출하량 조절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하지만 설치비가 만만치 않아 지자체들이 보조 사업을 통해 농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성군의 경우 영세 농업인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 혜택이 돌아가도록 2018년부터 기준을 완화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우스는 1983㎡(600평)에서 991㎡(300평)로, 과수농가는 4958㎡(1500평)에서 2975㎡(900평)로 지원 문턱을 낮췄다.

또 지난해부터 99㎡(30평)로 한정한 면적 기준을 없애고 16㎡(5평) 냉동·냉장 혼합 항목을 신설한 결과 영세농가 지원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도 내실을 기했다. 올해부터 서면평가 제도를 적용해 8개 전문업체를 선정, 농가들이 우려하는 부실시공 걱정을 없앴다.

장성군 관계자는 "저온저장고는 원예농작물 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시설"이라면서 "내년 지원사업 수요도 조기에 파악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

전남도 민간정원 제13호로 등록된 장흥 '월넛 치유정원'.
〈장흥군 제공〉

장흥 '월넛 치유정원' 전남도 민간정원 13호 등록

장흥 '월넛 치유정원'이 전남도 민간정원 제13호로 등록됐다.

6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읍 우드랜드길에 위치한 '월넛 치유정원'이 전남도 지정 민간정원 13호로 등록됐다.

전남도는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을 생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민간 정원을 지정하고 있다.

월넛 치유정원은 인체 치유 동산, 소나무 분재미술관, 이청준 동백실, 나그네 숲 등 4개의 주제로 조성돼 작지만 강한 '강소원(强小園)'을 표방하고 있다.

인체 치유 동산은 사람이 누워있는 형태로 머리 부분에는 석창포, 간 부위에는 헛개나무, 팔다리 부위에는 오갈피 나무 등을 심었다.

소나무 분재미술관에서는 50~200년 된 70여 그루 소나무 분재를 감상할 수 있다.

이청준 동백실은 소설가 이청준 선생이 애지중지했던 동백나무 분재를 전시하고 있다.

나그네 숲은 마음을 비우는 곳으로 손운동 건강용 귀족호도가 속이 비어있는 점에 착안해 조성한 공간이다. 인근에 귀족호도박물관이 있다.

월넛 치유정원은 멸종위기 희귀식물 22종과 특산식물 6종을 보유하고 있다. 민간정원 등록기준 식물유전자원은 총 111종 7900여 주(교목 54종 2,056주, 관목 24종 745주, 초본 31종 1,640주)가 식재돼 있다. 전국 으뜸 수목으로는 400년 모과나무, 300년 귀족호도나무, 100년 왜철쭉을 소장하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성군, 추석 앞두고

효도권 24·25일 지급

장성군은 추석을 앞두고 효도권 지급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10월 배포 예정이었던 4분기 효도권을 이달 24~25일 읍·면별로 지급할 방침이다. 추석 맞이에 효도권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장성군 효도권은 장성에 주소지를 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하는 목욕 및 이·미용 통합권이다. 1년에 4회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1인당 4만5000원 규모로 지원된다.

지난 2015년 첫 시행이래 올해로 6년차를 맞이했다. 최초 목욕업소로 제한되어 있던 사용처를 이·미용업소까지 확대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춰 변화를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5000원권과 1000원권으로 나눠 발행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장성군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효도권 관련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95~98%가 지원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률도 고무적이다. 지난해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장성군은 지난해 1만2400명에게 44만2538장의 효도권을 지급했으며, 이 중 96%가 회수됐다. 업소별로는 이·마용 관련 71%, 목욕업소가 29%를 차지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4분기 효도권을 미리 지급해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담양군 고서면 덕촌마을 2호 치매안심마을 지정

담양군은 고서면 고읍1구 덕촌마을을 담양군 2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치매 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치매가족의 고립 방지, 보호가 필요한 치매환자를 마을 안에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제1호 담양 치매안심마을은 금성면 석현마을로 지난해 4월 지정됐다.

이번 사업으로 고읍1구 치매안심마을에서는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시작으로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간호사, 작업치료사 등)이 직접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 치매 조기 검진, 인지강화 교실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치매환자의 치매 악화 방지와 보호자의 부양 부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경증 치매환자를 보호해주는 쉼터도 함께 운영된다.

김순복 담양군 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치매 어르신이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